



빵 없는 뽑기 기계

곽유진 글 • 차상미 그림 / 72쪽 / 양장 / 윌컬러 / 148*215 / 10,000원 / 초등 1학년부터
978-89-491-6202-7 74800 / 2020년 3월 1일 펴냄

2020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작

세상에 '빵 없는 뽑기 기계'가 있다고? 오백 원짜리 동전을 넣고 돌리면 펼쳐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

·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뭉클함이 놀랍다!
작가의 문장 하나하나가 어린이의 깊은 내면을 향해 있는 경이로운 작품!
- 김진경, 김리리, 김지은 심사평 중에서

매년 신선하고 색다른 작품으로 저학년 문학에 새로운 활기를 일으켜 온 비룡소 문학상이 9회를 맞아 곽유진의 『빵 없는 뽑기 기계』를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빵 없는 뽑기 기계』는 어느 문구점 앞에 놓인 '빵' 없는 뽑기 기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동화다.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한 아이가 빵 없는 뽑기 기계를 통해 한 발 한 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재구성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야기를 담담하고도 가슴 뭉클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오백 원짜리 동전을 넣고 돌렸을 때 빵 없이 무엇이든 나오는 뽑기 기계가 있다는 독특한 설정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인다. 주인공 희수가 왜 뽑기를 싫어하게 됐는지, 희수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인지 의문으로 둔 채 흘러가는 서사는 뽑기 기계에서 빵 없이 나오는 환상적인 물건과 만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거듭하며 이야기를 이끈다.

심사위원 김진경(동화작가), 김리리(동화작가), 김지은(아동청소년평론가)은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뭉클함이 놀랍다.”며 “반복해서 읽으면 다양한 수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가의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품”으로, 비룡소 문학상 대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이야기에서 상징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의 울컥함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차상미 화가의 그림과 만나 여운을 더한다. 저학년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문학적 성취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 팡 없는 뽑기 기계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 그 마술적 환상성

“나는…… 난 뽑기를 하면 안 돼.”

“으하핫! 뽑기가 뭐라고 그렇게 겁을 먹니. 해도 괜찮아.”

등하굣길에 늘 뽑기를 하던 희수는 어느 날부터 뽑기를 멀리 한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희수가 다시 뽑기를 하게 되면서 얼어붙었던 마음과 목소리를 차츰차츰 되찾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실 희수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고 있었던 것. 이야기는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희수가 어느 문구점 앞에서 팡 없는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뽑기를 다시 시도하고, 그 뽑기에서 나온 상품들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마술적인 치유의 과정을 보여 준다.

희수를 ‘팡 없는 뽑기 기계’로 안내하고 도와주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어린 시절 모습의 엄마 아빠를 떠올리게 한다.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한 엄마, 아빠가 아이의 뽑기 행위를 완성시켜 줌으로써 아이의 죄의식을 소멸하게끔 도와주는 것. 아이는 환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한 뽑기를 통해 슬픔을 딛고 극복해 간다.

이 작품을 처음 읽을 때는 주인공 희수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읽게 되고, 그다음에는 뽑기 기계로 희수를 안내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시선으로 희수를 바라보며, 희수의 삶을 응원하게 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작가는 환상성이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

■ 즐거리

뽑기를 좋아하는 희수는 언젠가부터 뽑기를 싫어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 문구점에 갔다가 우연히 문구점 뒤에 있는 처음 보는 골목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길에서 어떤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는 희수를 ‘팡 없는 뽑기 기계’로 안내한다. 팡이 없다는 말과 뽑기가 뭐라고 안 하느냐는 남자아이의 다독임에 희수는 망설임 끝에 뽑기 기계에 오백 원을 넣는다. ‘팡 없는 뽑기 기계’에서는 정말 1등이라고 적힌 캡슐이 나오고, 1등 상품으로 희수는 낡은 칫솔 두 개를 받는다. 이 낡은 칫솔 두 개로 희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곽유진 글

통영에서 태어나 바다의 아름다움과 조선소의 웅장함을 동시에 보고 자랐다. 『어머니들의 아이』로 2017년 제4회 SF어워드 중단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팡 없는 뽑기 기계』로 2019년 제9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했다. 현재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회원이다.

차상미 그림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책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팡 없는 뽑기 기계』, 『나는 법』, 『봄날의 꿈』, 『떨어지면 어떡해』, 『나만 그래요?』 등에 그림을 그렸다.

13자리 바코드 9788949162027

도서명 팡 없는 뽑기 기계

인증유형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사명 (주)비룡소

제조국 대한민국

사용연령 3세 이상

주의사항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모서리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